□경제시리즈 Ⅲ — IMF후의 노사정, 진정한 화합의 길은 무엇인가(完)

아쉬움 많은 노사정 위원회, 개혁과제 산적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결과 분석하고 책임져야

국민적 성원과정부의 긴급 대책마련으로 우리의 경제위기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면에서는 경제파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밀어닥칠 파고를 예견하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편집자〉

◆경제위기 시리즈◆

글 싣는 순서

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② 노사정 화합, 영원한 꿈인가
❸ IMF 후의 노사정, 진정한 화합의 길은 무엇인가. (完)

김 민 영
〈경실련 정책연구간사〉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파생한 아쉬움에 대해 몇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뉴욕에서 2백50억불의 단기외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자측은 1월 15일부터 사흘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우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개정하여 부실금융기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정리해고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1월 13일 김대중 당선자가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재벌 총수를 만나 재벌개혁에 합의한 것도 노동계에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것은 97년 12월 27일 대통령당선자가 약속한대로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노사정위원회에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배제되었지만 노동계 대표들은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회전반의 개혁내용을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1월 20일자 합의문에서 경제위기의 원인규명, 실업대책, 예산삭감, 재벌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의 생산성 및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 실업발생 최소화 방안 등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사항의 이행 등이 표명되었다.

정부와 재계는 실업대책,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로부터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협의회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리해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정부측은 2월 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강행한다며 노동계를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들이 불참선언을 하고 퇴장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노동계는 정리해고 조기도입, 근로자 파견법 입법을 양보하는 대신 그 절차와 내용을 명시하고, 전교조 합법화(99년 7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99년 1월부터),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재벌개혁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가장 큰 아쉬움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모든 부분이 개혁과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유착과 파행정치의 당사자인 정치권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느낌이다. 중간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숫자를 2백명 정도로 줄이는 등, 고비용 정치에 대한 개혁을 건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전부였다.

또한 단위노조에서는 노동계 대표가 정리해고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합의에 실패한 것보다는 합의한 것이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훨씬 득이 될 것이다. 95년 노개위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입법화과정에서 노동계에게 불리한 법조항들이 많아진 것을 기억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쉬움과 함께 성과도 없지 않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는 정권교체기, 특히 IMF와의 협약 이행을 위한 사회개혁을 해야 하는 대통령 당선자측이 노사정위원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며,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개혁후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합의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는 합의에 참가한 이해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관점은 그 결과가 아니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내기 위한 노력에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에 임하되 합의의 결과에 대해 성과와 아쉬움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최대한 사회적으로 힘이 되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때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회단신

서울대 총학 학생 대토론회 개최

학생위기 극복과 98년 전망 모색을 위한 학생운동 대토론회가 오늘 4시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열린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정권하의 98년 학생운동 운동의 목표와 과제" 와 "학생운동위기와 연합체운동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전경 원천봉쇄 동총련 개강집회 무산

지난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될 계획이었던 동부지부총학생회연합(동총련)의 개강투쟁집회가 무산되었다.

당초 동총련 개강투쟁집회는 한양대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으나 한양대의 원천봉쇄로 우리학교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날 서울캠퍼스마저 봉쇄당해 변경된 계획마저 무산되었다.

이에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정문앞에서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동대문구청장 재출마 반대 성명

6.4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현 동대문구청장이 재출마 의사를 밝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서는 "박 구청장의 취임기간 동안 동대문구 전농3동 재개발지구 방화살인철거가 자행되었고, 동대문구청은 청량리경찰서에 폭력연행과 불법구속을 사주하여 4백여명의 전투경찰을 투입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철연에서는 지난 12일 회기역 앞에서 '박 구청장 재출마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강 단 시 론

'잡아함경' 속의 소박한 진리

민 관 동
〈중어중문학과 교수〉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의 근본 가치관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라도 만난 것처럼 항심(恒心)을 잃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만다.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끔씩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또 자신을 성찰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듯하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 매우 흥미있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옛날 어느 한 나그네에게 네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부인은 밤낮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이었고, 둘째 부인은 낮에만, 즉 눈을 뜨고 있을 때에만 사랑하는 부인이었으며, 셋째 부인은 가끔씩 생각날 때만 관심을 주는 부인이었고, 넷째 부인은 거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부인이었다. 어느날 그 나그네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면서 네 명의 부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장 사랑을 했던 첫째 부인은 냉정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또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도 가지 않는데 왜 내가 따라 가야 하느냐며 정중히 거절하였다. 셋째 부인은 그래도 옛정이 있으니 동네 어귀까지만 동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할 수 없이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넷째 부인에게로 가서 동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넷째 부인은 흔쾌히 따라 나서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 가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 부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고, 둘째 부인은 돈과 출세이며, 셋째 부인은 이웃과 친지들이고, 넷째 부인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밤낮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죽음에 이르면 냉정히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인 것이다. 또 돈과 출세도 단지 눈을 뜨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을 뿐, 죽을 때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이웃과 친지들도 나그네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의 인지상정인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도 초월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인데, 이는 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토록 살아 숨쉬며 칭송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 젖어들면 쉽게 망각해 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더욱 탐욕스럽게 자기 육신만을 위한 이기주의를 발동하고 또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기에 급급해진다.

인간은 때가 되면 죽기 마련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돈과 출세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오욕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이기심과 사욕을 훌훌 털어 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바람직한 삶인지, 또 후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인터뷰 —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 연구원 소영주씨

정리해고 일순위에 놓인 여성인력

한 나라를 지탱하는 반석은 노동자다. 서영주씨는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일을 하는 이들 중 한 사람이다. 대학시절부터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그녀는 92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그 다음해에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소(노기연)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었다.

노기연은 노조경영을 분석하고 노사간의 문제해결방안을 생각하는 노조연구소다.

"현 상황에서 임금투쟁은 꿈도 못꾸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정리해고 등의 고용불안정 상태들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라며 그 예로 현재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해고 방법을 귀뜸해 주었다. "몇 출판업계에서는 '삐삐해고' 라고 해서 메시지에 '당신 해고야'를 전달해 껄끄러운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송국에서는 작가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가장 나갔으면 하는 동기들의 이름을 적어 내어 제일 많은 지목을 받은 사람을 정리해고 시키는, 상당히 '민주적'인 해고를 하기도 해요. 물리적 힘만 안썼다 뿐이지 이건 엄청난 폭력이죠" 그 밖에도 일을 주지 않고 자진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 부서를 원래 부서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심각해요. 임신을 해도 들키면 해고대상이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다니죠. 노동력 생산인 출산까지도 축하받지 못하고 해고에 노출되어야 하는 사회, 거기다 여성은 해고시키면서 맞벌이 부부를 원하는 사회, 이 사회는 여성이 슈퍼우먼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라며 여성노동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는 화합이라기 보다는 위에서의 압력이죠"라며 "재벌개혁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으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현재 노기연은 IMF 노동강좌를 기획하고 금융과 자동차 사업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작은 변화를 주려는 그들의 노력이 고통받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정수윤 기자〉

□세계인권선언과 양심수에 대한 간담회를 다녀와서

인권, 음지에서 양지로

"나는 당신의 사상을 반대하오. 그러나 이 때문에 당신이 탄압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소"

지난 3월 12일, 총학생회가 주최한 '인권과 양심수에 대한 강연'에서 들은 볼테르의 말이다. 강연자는 인권운동사랑방에 몸 담고 있는 박래군씨.

그는 "인권은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라고 말한다. 이 내용이 실린 세계인권선언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엔에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가입하면서 이 선언을 받아들일 것에 합의했으나 아쉽게도 이 선언이 아직까지 이 나라에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세계인권선언문 18조와 19조를 보면 사상,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며 "우리나라에서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몇 십년간 7.5평의 독방감옥에 양심수를 수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언문에 크게 위배되는 내용이죠." 라고 전한다.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에 서둘러 가입한 우리나라는 유엔의 경고에도 잘 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대부분 중병에 걸려있는데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양심수가 많다"고 한다.

40년을 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얼마나 큰 모순인가.

〈사회부〉

힘모아 나라사랑 뜻모아 겨레사랑

창업자 유일한 박사
1971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 전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父傳女傳

딸 유재라 여사
1991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이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2代에 걸친 재산의 사회환원-
유한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유한의 기업정신
유한은 기업이윤의 40%를 사회에 환원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온 유한양행 72년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이념은 끊임 없는 우수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버들표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으며 각종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유한의 연구개발
새로운 간장질환치료제(YH-439)와 항궤양 약물(YH-1885), 그리고 에이즈 치료원료를 개발하는 등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유한의 새로운 신약개발은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